

솔로몬의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긍휼

성경말씀: 왕상11:1-13

성경을 읽는 여러 이유: 구원, 교리, 성화, 지식,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삶의 교훈
인문학 열풍, 목적은 현인들의 삶을 배워 인생을 바르게 살자.

인문학 고전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: 가장 오래된 책, 많이 팔린 책, 널리 읽힌 책, 세상을 지배한 책,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. 이스라엘 중동 사태 등
사람은 늘 실수하며 산다. 부모나 형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배은망덕,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
교회에서도 마찬가지, 사람과 짐승의 차이,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.

왕상 22, 왕하25, 총 47장 그중 솔로몬 이야기가 11장, 의미심장하다.

<솔로몬의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긍휼>, 타락의 과정, 마음 문제, 배은망덕,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
솔로몬

다윗과 밋세바 사이의 아들, 여러 아들(대상3:1-9, 헤브론 6, 예루살렘 13, 첩의 아들들), 간음의
대상 여자에게서 난 특이한 아들, 밋세바 사이에 4명, 맏아들은 아니었다. 암논, 왕위 계승 불가
그런데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'여디디야'라는 이름을 받음(삼하12:24-5).

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지으려 하였으나 주님의 말씀: "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안 된다."

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풍부히 준비함.

이때에 이미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으로 공표함(대상22).

다윗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공식으로 왕위를 승계하지 않자 반란이 일어남.

왕자 중의 하나인 아도니야가 요압 및 아비아달 등과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려 함.

왕이 밋세바, 나단 대언자의 청을 듣고 사독, 브나야와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

그는 어렵게 왕이 되었음.

아도니야의 말: 백성의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였으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줌(왕상2:15)

왕상 3장: 솔로몬의 시작은 좋음

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함(왕상3:9). 하나님의 복(3:10-13).

그의 지혜(왕상4:29-34)

이후로 솔로몬은 성전 및 왕궁 건설, 영토 확장, 금은보화가 넘쳐나며 태평성세를 이룸

왕상10장: 온 땅의 치리자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옴(24).

세바의 여왕, 그녀의 모든 질문 대답, 그녀의 응답(4-9): 너무 놀랍다. 상상과 기대 이상이다.

유다 백성의 행복(8), 하나님 찬양(9)

여기까지로 그의 삶이 마감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?

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, 다윗 이상 가는 통치자로 남았을 것이다.

문제의 시작

왕상11장은 '그러나'로 시작된다. 이 한 단어로 완전히 모든 것이 반전된다.

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. '그러나'로 삶이 반전되면 위기가 찾아온다.

1-2절: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.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
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이후 주신 10가지 명령: 다른 신을 두지 말라. 이방신을 멸절해라.

특히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(신17:16):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와 인척관계(3:1), 왕비를 위해 왕궁
건설(9:24), 말과 병거를 사 옴(10:26-29).

하나님 대신 이집트를 자기 방패로 삼으면서 문제가 시작됨.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더니 그게
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옴(다윗의 시 시20:7).

이집트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, 좋은 것이 많게 보인다. 유혹의 대상

고후5:7,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끊지 않으면 큰 망신을 당한다.

구원받은 이후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척결한 것을 척결해야 한다.

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집트와 교류함. 양다리를 걸침.

그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기게 됨. 이것이 그의 노년의 삶을 망침
2절 설명: 신7:4, 이방 여인 결혼 금지, 지금의 국제결혼과는 다른 개념.

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, 우상숭배하는 타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함.

결국 그는 그 여인들에게 굳게 달라붙음.

3절: 몸만 붙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그들에게 달라붙음

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림,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노출되면 결국 지혜의 대왕도 어리석은 일을 행함

4절: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.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(잠4:23).

5절: 드디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함.

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생겼다. 그런데 이게 사람이다.

“그 목사가 그런 일을 하다니!”, “아니 그 형제가, 아니 그 자매가!” 그럴 수 있다.

하나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솔로몬도 그랬다. 마귀와 세상에 노출되면 그렇게 된다.

가랑비에 젖는다는 말처럼 조금씩조금씩 노출되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.

그래서 솔로몬은 후에 잠3:5-7을 기록함

7-8절: 예루살렘에 그모스 산당, 몰렉 산당, 모든 이방 잡신 산당

말 그대로 종교 통합의 대가가 되었다. 현대판 빌리 그래함

9절: 하나님이 경고하시려고 그에게 직접 2번 나타남

10-13절: 하나님의 심판, 유다 왕국의 분열, 유다의 쇠약

하나님의 긍휼

솔로몬은 배은망덕의 극치, 우리 같으면 즉시 처결

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, 우리는 어떤가?

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따라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삶을 마감하였다.

잠언의 핵심: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(잠1:7),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.

잠15:16 물질이 없어도 주를 두려워해라. 그래야 악에서 떠날 수 있다(16:6)

전도서는 그의 인생 후반부 경험(전1:4, 14; 2:11(성전, 왕국, 부인 700명), 25-26).

그의 권고(11:9-11)

결론(전12:13-14)

결론

시작부터 우상을 척결해야 한다. 우상은 탐욕이다.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

미적미적 지내며 양다리를 걸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.

특히 솔로몬처럼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.

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계기를 만들면 안 된다.

이후로 솔로몬은 두고두고 유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.

지혜의 왕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대명사로, 부끄러운 구원

이방 여인들처럼 나를 망치는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점검하라.

솔로몬처럼 되려 하지 말라: 그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이다.

솔로몬의 경험을 내 경험을 삼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지혜

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.

솔로몬 같은 사람도 기회를 받아 돌아왔다. 그러면 우리도 돌아올 수 있다.

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는가?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다.

예수님의 말씀: “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, 보라,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”(마12:42)

회개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풍성이 주어질 것이다.